

생태민감지역 트레일 방문동기별 지각된 제약요인과 충성도 차이

- DMZ 평화누리길 방문객을 대상으로 -

유미나* · 김형곤** · 이정아* · 진진형***

*고려대학교 대학원 ·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Disparities in Perceived Constraints and Loyalty Based on Motivation to Visit Ecologically Sensitive Area(ESA)

- Visitors to DMZ Pyeonghwa Nuri-gil -

Yoo, Mi-Na* · Kim, Hyoung-Gon** · Lee, Jung-A* · Chon, Jin-Hyung***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Tourism, Sejong University

***Division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Ecolog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extent to which visitors to the DMZ Pyeonghwa Nuri-gil Trail(located in one of the most Ecologically Sensitive Areas(ESA) of Korea) are motivated by perceived constraints and loyalty to the trail.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e participants of the '2010 DMZ Border Trekking Course', which resulted in collecting 317 valid responses. For statistical tests, the respondents were divided into three clusters(accidental, activity-driven, and nature-driven) by their motivation for the visit. ANOVA was conducted to examine if the three groups differ in terms of the perceived constraints and loyalty to the DMZ Pyeonghwa Nuri-gil Trail. The results showed that nature-driven visitors were more likely to perceive "psychological constraints" than accidental or activity-driven visitors. As for loyalty, accidental visitors displayed the lowest level of loyalty while nature-driven visitors indicated the highest level of loyalty. These results illustrate that nature-driven visitors not only have the strongest desire to experience and learn about ESAs but also possess the highest sense of loyalty to the trail. It can further be argued that nature-driven visitors are the ones with the greatest concern for the trail's well-being. The paper concludes with the contention that understanding the demand and characteristics of trail visitors is critical to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trail.

Key Words: Trekking, Cluster Analysis, Visitor Motivation, Loyal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내의 대표적인 생태민감지역인 DMZ에 위치한 평화누리길 트레일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 본 논문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제번호: PJ007426062012)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2011-0014210).

Corresponding author: Jin-Hyung Chon, Division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Ecological Engineering, College of Life Sciences, Korea University, Seoul 136-713, Korea, Tel.: +82-2-3290-3048, Email: jchon@korea.ac.kr

그들의 방문동기에 따라 인식하는 제약요인과 충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실증적 분석을 위해 '2010 DMZ 집경 트레킹 대회'에 참가한 트레일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총 317개의 유효한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방문동기에 따라 3가지 군집유형(우발적, 활동형, 생태체험형 방문객)으로 응답자들을 분류하였으며 군집유형간 트레일 이용에 관한 제약요인과 충성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군집유형간 제약요인의 차이는 생태체험형 방문객들이 다른 두 군집유형에 비해 "심리적 제약" 요인에서 더 높은 제약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발적 방문객들이 트레일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생태체험형 방문객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 연구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방문동기가 전반적으로 가장 강하고 생태체험 및 교육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생태체험형 방문객들은 트레일 자체에 대한 우려를 가장 많이 나타내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가장 높은 충성도를 지닌 집단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트레일 개발에 있어 이용객들의 세분화된 요구와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주제어: 트레킹, 군집분석, 방문동기, 충성도

1. 서론

최근 제주 올레길의 이슈화와 함께 트레일(trail)이 각광받으며 녹색의 여가선용으로 트레킹이 하나의 트렌드로 부각되었다. 국내·외적으로 걷기 열풍이 확산됨에 따라 올레길, 둘레길 등의 이름을 붙인 '~길'이 트레킹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보 여행객들을 위한 트레일 개발계획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들어 수려한 원시적 자연경관, 역사 문화적으로 높은 내적가치를 지니고 있는 생태민감지역이 새로운 트레일 조성 대상지로 주목받고 있다(이영주, 2009; 오충현, 2010).

생태민감지역(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은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고 보존해야 할 잠재자원들이 풍부한 특성을 지닌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1987년 영국에서 최초로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보존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Victoria, 1989; Ndubisi *et al.*, 1995; 이규천 등, 2001). 즉, 생태민감지역은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생명의 장소로서 지역적 맥락에서 장기적 유지관리가 필수적인 장소라고 볼 수 있다(Ndubisi *et al.*, 1995). 이러한 정책적 도입은 국가적 자산인 생태민감지역의 개방적 보존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생태환경지역을 즐기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더불어 지역이 지니고 있는 지리적·환경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여러 형태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생태환경지역과 관련한 연구는 지역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통한 생태민감지역의 이익을 추정한 경제효과분석연구(Willis *et al.*, 1995; Garrod and Willis, 1999; Nick *et al.*, 1998; 최재용, 2004), 생태민감지역의 환경적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Ian and Sandra, 1998), 생태민감지역의 계획 및 관리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개발에 대한 기준 및 계획을 세워 타당성을 제시한 연구(Eagles, 1981; Victoria, 1989), 생태민감지역의 그린웨이 코리더 개발을 위한

템플릿 개발 연구(Ndubisi *et al.*, 1995)들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생태민감지역의 전반적인 역할과 가치에 관한 이해를 추구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새로운 역할로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생태민감지역 내의 트레일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생태민감지역 내의 트레일 조성계획은 생태구조적 관점에서 생태계의 단절된 녹지 연계, 생물다양성의 증가 및 야생 동·식물의 서식공간을 마련하여 생태민감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유지관리 차원에서의 역할이었으나(Chon, 2009), 최근 걷기 열풍에 힘입어 사람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가선용의 중요 자원으로 트레일의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이용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트레일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선행단계로서, 이용자들의 인식과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McIntosh, 1977; Thomas *et al.*, 1995; 박수완과 한승엽, 1998). 즉, 생태민감지역 내 조성된 트레일 이용객들의 인식을 이해하는 것은 향후 생태민감지역 주변 및 유사한 환경의 트레일 개발 계획 시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트레일 이용객들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해 주기 위한 출발점은 방문 동기의 이해라고 볼 수 있다. 동기는 행동을 촉발시키는 이유인 동시에 행위의 결과에 대한 만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에서 이용객들의 방문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Crompton, 1979; Eagles, 1992; Land and O'Leary, 1997; Holden and Sparrowhawk, 2002). 특히, 여가목적으로 트레일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동기는 동일하지 않고 다양하게 세분화될 수 있다는 것이 기존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Ewert, 1985; Land and O'Leary, 1997; Holden and Sparrowhawk, 2002). 같은 장소의 트레일 방문이라 할지라도 장소에 도달하기까지 작용하게 되는 제약

요인이 방문객 유형별로 상이할 것이며, 충성도 또한 이용객의 특성 및 가치를 다르게 인식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제약요인의 경우 트레일 이용의 방문동기에 있어 장애가 되는 요인을 도출하고, 그 이해를 돕기 위한 매커니즘으로 개념화됨에 따라 방문객 유형별 어떠한 요인이 트레일 이용에 장애가 되는지 분석할 수 있는 스케일로써 작용한다(Buchanan and Allen, 1985; Searle and Jackson, 1985). 트레일 이용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유지를 위한 방법의 척도로 재방문 의사, 대상지에 대한 긍정적 의사, 추천의사, 지불의사의 항목을 측정도 하는 충성도 스케일 또한 방문객 유형별 특성이 다를 것이라 판단된다.

성공적인 트레일 개발과 운영을 위해서는 세분화된 방문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방문동기에 따라 세분화된 이용객들이 지니고 있는 트레일 이용에 지각된 제약요인 및 충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최근 들어 각광받기 시작하고 있는 평화누리길 이용객들의 방문동기를 분석하고, 방문동기 군집유형별 트레일 이용에 관한 제약요인과 충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조경학 분야에서 미진하게 이루어져 왔던 트레일 이용객들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탐색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이용자 친화적인 트레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방문동기

동기는 이용객들의 행동의 방향과 힘, 지속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목표를 향한 행동을 활성화하고, 지시 및 유도를 이끌어내는 내적 상태를 말한다(Iso-Ahola, 1982; 강미희 등, 2003). Iso-Ahola's(1982)가 제시한 동기의 이분적 모델(dichotomous model)에서 탈출(escape)과 추구(seeking), 개인(personal)과 대인(interpersonal)의 다른 이면의 동기유형은 일상생활으로의 탈출 및 미래 행동에 대한 본질적 보상을 얻기 위한 선행동이란 결과를 제시하였다(Kim et al., 2006). 즉, 동기를 조사하는 것은 개인이 의도하는 행위의 목적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Eagles, 1992).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방문동기는 개인이 특정지역을 방문하는 이유인 동시에 그러한 방문을 통해서 개인이 추구하는 혜택을 의미한다. 트레일과 같은 방문자 지향형 여가공간의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과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방문객들이 트레일 방문을 결정하게 만드는 요소인 방문동기에 관한 조사와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김희성과 이재섭, 2010). 일반적으로 동기를 방문객들의 추구혜택이라는 측면에서 접근

하면, 동기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곧 방문객의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고, 높아진 만족도는 재방문의도나 추천의도와 같은 충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방문동기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Crompton, 1979).

일반적으로 자연공원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방문동기를 조사한 연구들은 해외에서 다수 이루어져왔다. 특히, 자연체험을 근간으로 하는 이용객들의 특성을 구체화하고, 궁극적으로 이용객의 욕구와 동기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Land and O'Leary, 1997; Holden and Sparrowbawk, 2002; Kim et al., 2006). 예를 들어, Land and O'Leary(1997)의 연구에서는 호주의 자연체험활동의 동기, 참여활동 및 목적지 선호도에 따른 다변수적 요인들을 이용하여 '체력도전 추구형', '가족연대 추구형', '문화·여가 추구형', '자연체험 추구형', '일탈·휴양 추구형', '무관심 추구형'의 세분화된 방문동기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 중 공원 방문객들의 트레일 이용 동기에 관한 연구들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Pittman(1980)는 웰링턴 트레일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이용 동기를 9가지(신체적, 심리적, 심미적, 환경적, 사회적, 호기심, 관련활동참여, 습관성, 도전)로 구분하고 있다. 연구결과, 이 9가지의 방문동기 중 특히, 습관성 동기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용객들의 대다수가 인근 지역주민이라는 점에서 습관성이라는 방문동기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Holden and Sparrowbawk(2002)은 네팔 안나푸르나 지역 내 트레일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방문동기의 세부유형 분석 결과, '일탈·휴양', '홍분·설렘', '사회유대', '자아실현·발견', '성취'를 도출하였으며, 안나푸르나 지역 트레일 이용객들의 대부분이 환경보전에 관심이 높아 자연을 즐기고 배우는 체험을 강하게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실은 동일한 트레일을 방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트레일을 이용하는 주요 동기는 다양한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트레일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은 동질적인 특징을 지닌 하나의 집단이 아니고 여러 동기를 지닌 세분화된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트레일 이용객들의 다양한 방문동기를 파악하고, 유사한 방문동기를 지닌 집단별로 구분하여 연관된 세부적인 행동 및 태도 등을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방문동기는 개인이 특정한 대상을 방문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혜택들을 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방문동기별로 추구하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집단별 행동뿐 아니라 만족도, 충성도와 같은 방문경험 평가도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특히, 트레일과 같이 정형화된 대상물이 제공해 주는 객관적인 자극의 특성은 방문자별로 다르지 않을 것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으나, 동일한

자극과 경험에도 불구하고 방문자들이 추구하는 혜택(방문동기)에 따라서 해당 자극과 경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즉, 동일한 트레일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동기유형별로 세분화될 수 있고, 세분화된 방문객 집단은 동일한 대상과 경험에 대해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방문경험에 의해 형성된 행동의도인 재방문의도나 추천의도와 같은 충성도가 다르게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2. 제약요인

일반적으로 제약이란, “원하는 대안의 성취를 저해하는 메커니즘”으로 정의되고 있다(Searle and Jackson, 1985). 제약요인은 특히 여가학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고, 최근 들어 좀 더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는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가학 분야에서 진행된 제약요인 관련 연구들은 궁극적으로 특정한 여가활동 혹은 사회집단의 비 참여 원인을 도출해 내어 잠재적 수요를 활동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Buchanan and Allen, 1985; Searle and Jackson, 1985; 이시영, 2004). 하지만, 여가제약요인이란 단순히 특정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를 저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활동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경험과 편익의 획득을 방해하여 대상 활동 혹은 대상지에 대한 선호도 형성을 방해하는 모든 요인을 지칭한다(Jackson, 1991).

특정 장소의 방문 의사결정은 그 지역 방문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과 제한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비용간의 교환(trade-off)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목적지 선택시 제약요인의 영향을 받아 후기고려대상지(late consideration set)와 최종목적지가 결정되게 된다(Um and Crompton, 1992; Ankomah et al., 1996; Tian et al., 1996).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제약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덧붙여, 특정한 여가활동 혹은 소비에 이미 참여하는 사람들이 왜 참여하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여를 방해하거나 참여에 불편을 느끼게 하는 부분들을 파악하여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지속적인 소비시장을 창출과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Williams and Fidgeon, 2000). 본 연구의 대상지인 생태민감지역 내 트레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인식하는 제약요인분석 또한 트레일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

트레일 이용을 여가활동으로 볼 때 생태민감지역 내 트레일 방문객들이 인식하는 제약요인 또한 여가제약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위계적 여가제약 모델에 따르면, 여가제약의 구성요소는 내적(intrapersonal), 대인적(interpersonal), 구조적(structural)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다(Crawford and

Godbey, 1987). 내적제약은 스트레스, 우울, 분노, 종교, 특정 여가활동에 대한 이전의 사회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각 등에 해당되는 주관적 제약이 이에 속한다. 대인적 제약은 가족이나 친구와의 여가활동과 관련이 있다. 구조적 제약은 경제, 시간, 기회의 활용, 가족생태주기 등과 관련한 제약이 속한다. 이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여가활동 참여자들은 여러 제약요인을 인식하게 된다. 둘째, 이러한 여가제약요인들은 상호 위계적인 관계를 가지며 작용하게 된다. 특히, 위계적인 측면에서 여가제약요인의 작용 원리는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내적인 측면의 제약요인을 먼저 인식하게 되고, 이후 순차적으로 대인적, 구조적 제약요인들을 고려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후 여러 여가 연구들에서는 여가참여 혹은 방문동기에 따라 인식하는 제약요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Crawford et al., 1991; Jackson et al., 1993; Hubbard and Mannell, 2001; Gerard and Andrew, 2003). 대부분 인간 활동 제약요인은 접근성과 관심의 부족(Jackson et al., 1993), 시간, 경제적요인, 정보 부족, 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이 활동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David and Jackson, 1996; Jackson et al., 1993; MacGuire, 1984). 그 중에서도 구조적 제약에 속하는 시간 및 돈 부족이 실질적 모든 연구들에서 활동의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Jackson, 1991; David and Jackson, 1996; Tian et al., 1996; Williams and Fidgeon, 2000). 앞서 논의하였듯이, 방문동기는 개인이 방문행위를 통해 추구하는 혜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방문동기는 개인이 여가활동에 참여할 때 여가의 특정한 영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된다(Hubbard and Mannell, 2001). 제약요인이 특정한 활동에 대한 참여뿐 아니라 추구하는 혜택에 대한 방해요소라고 본다면 방문동기에 따라서 추구하는 혜택의 획득 여부에 대한 관심과 판단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리적 근거를 통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트레일 방문동기 유형별 제약요인 영향관계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3. 충성도

충성도는 방문동기별 트레일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의 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충성도는 마케팅 분야에서 주로 발전된 개념으로서 만족도와 더불어 개인이 인식하는 소비경험의 질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지표로서 활용되어 왔다(Oliver, 1999). 마케팅 관점에서 충성도는 일정한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일괄적인 선호경향이라 볼 수 있으며, 대상에 대한 깊은 몰입으로 인해 다른 대상의 출현과 마케팅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소비하려는 경향을 지칭한다(이장로 등, 2005). Dick and Basu(1994)의 연구에서는 대

상지에 대한 충성도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특정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게 되는 행동적 측정, 둘째, 특정 대상지에 대한 이용객의 태도측정, 셋째, 태도와 행동의 통합된 측정으로 세분되어진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다른 연구들에서도 크게 행동적 접근법과 태도적 접근법으로 나누어 충성도를 설명하고 있다(Aaker, 1991; Assael, 1998). 특히, 태도적 접근법에서 살펴보면, 트레일과 같은 대상지에 관한 충성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재방문의사와 긍정적 구전의 의사와 같은 미래의 행동의도를 포함하고 있다(Dick and Basu, 1994).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잘 알려진 것은 만족도라고 할 수 있으며, 만족도는 또한 동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문동기에 따라 충성도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Yoon and Uysal(2005)이 사이프러스 섬을 방문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는 관광객들의 휴식, 가족유대강화, 즐거움 추구하고 같은 방문동기들이 해당 관광지에 대한 만족도뿐 아니라 충성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인 트레일 방문객들의 방문동기는 트레일에 관한 충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트레일 방문동기 유형별 충성도의 차이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공원과 트레일 이용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방문동기가 트레일 혹은 공원이용과 관련한 여러 태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Searle and

Jackson, 1985; Crawford *et al.*, 1991; Jackson *et al.*, 1993; Vallerand and Losier, 1999; Hubbard and Mannell, 2001). 트레일 이용에 관한 중요 태도변수의 하나로서 제약요인에 대한 인식 또한 방문동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연구들이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방문동기는 특정한 대상을 통해 방문객들이 추구하는 혜택 혹은 편익을 나타내는 변수라고 이해할 수 있고, 추구편익에 따라서 대상에 대해 인식하는 충성도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Dick and Basu, 1994; Yoon and Uysal, 2005). 즉, 방문동기 유형에 따라서 트레일에 대해 인식하는 충성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와 더불어, 트레일 이용자들의 세분화된 시장별 트레일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향후 성공적인 트레일 개발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평화누리길 트레일 방문객들의 방문동기유형별로 트레일 이용에 관해 인식하는 제약요인과 충성도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조사하고자 2가지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평화누리길 트레킹 이용자들의 방문동기유형별 집단에 따라 트레일 이용에 대해 인식하는 제약요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2. 평화누리길 트레킹 이용자들의 방문동기유형별 집단에 따라 해당 트레일에 대해 인식하는 충성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설계

1) 연구대상지

공간적 구성에서 본 조사 대상지는 DMZ 일원에 조성된 트레일이다. DMZ 일원의 경우, 크게 DMZ, 민통선북방지역, 접

표 1. 평화누리길 노선현황

지역	코스	길이(km)	주요구간
김포 (39.0km)	1	16.6	대명항~덕포진~김포CC~통진휴게소~문수산성 입구
	2	8.0	문수산성~청룡회관~조강포~애기봉 입구
	3	14.4	애기봉입구~마근포~후평리 철새도래지~전투리 포구
고양 (23.3km)	1	10.1	행주산성~행주나루~벚꽃길~호수공원 광장
	2	13.2	호수공원 광장~노래하는 분수대~킨텍스~가좌천~심학산 들레길~파주 출판도시
파주 (57.6km)	1	9.3	출판도시~NFC~통일동산
	2	20.9	통일동산~프로방스~아쿠아랜드~파주 제2공설 운동장~반구정
	3	10.8	반구정~임진각역~초평도앞~화석정
	4	16.6	화석정~적벽산책로~황포돛배
연천 (60.6km)	1	21.5	장남교~비룡대교~승의전
	2	16.4	승의전~임진강도립공원(예정지)~임진강 유원지(예정지)~군남홍수조절지
	3	22.7	군남홍수조절지~로하스파크~신탄리역

자료: <http://cafe.daum.net/ggtrail>

경지역으로 구분되며, 본 연구의 주요 조사대상지는 민통선북방지역과 접경지역 일대에 걸쳐 조성된 평화누리길 트레일로 한정하였다. 평화누리길 트레킹코스는 김포, 고양, 파주, 연천의 4개 지역을 총 12개의 트레킹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선의 총 길이는 180.5km이다(표 1 참조). 이러한 코스들 중에서 실증적 조사를 위해 선정한 연구의 구체적인 공간적 범위는 평화누리길 트레킹 코스 중 '2010 DMZ 접경 트레킹 대회'가 개최된 김포2코스(문수산성~애기봉입구)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 실증적 분석의 대상으로 활용한 주요 변수는 트레일 방문동기, 트레일 이용에 관한 제약요인, 트레일에 대한 충성도이며, 개별 변수에 대한 본 연구에서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트레일 방문동기는 이용객들이 인식하는 평화누리길 방문의 이유와 혜택으로 정의하였다. 트레일 이용에 관한 제약요인은 이용객들이 인식하는 평화누리길 방문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트레일에 대한 충성도는 이용객들이 평화누리길에 대해 인식하는 호의적인 행동의도로서 정의할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은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가구 연평균 소득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트레일 이용 특성의 항목은 평화누리길 트레킹 김포2코스 방문빈도, 다른 평화누리길 코스 이용빈도, 이동수단, 평화누리길까지의 이동수단, 평화누리길까지의 이동시간, 동행자, 평화누리길 정보의 획득에 관한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방문동기에 관한 측정항목은 Kim *et al.*(2006)에서 제시한 방문동기 항목들을 중심으로 트레일 이용객들이라는 연구맥락에 맞게 전문가 토의를 거쳐 적합한 항목을 선정하고, 문장을 수정하여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트레킹 이용객의 제약요인은 David and Jackson(1996)이 제시한 15개의 제약요인 항목들을 본 연구에 맞게 문장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충성도 측정항목 또한 Kim *et al.*(2006)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3가지 항목들의 문장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위의 세 가지 개념에 대한 설문문항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과제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현장 설문조사법이 사용되었다. 설문조사는 평화누리길 트레킹 코스 중 '2010 DMZ 접경 트레킹 대회'가 개최된 김포2코스(문수산성~애기봉입구)에서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회의 집결지인 김포조각공원과 점심식사를 하는 조강저수지에서 2010년 10월 9일에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방법은 설문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식(self-administered) 방식을 채택하였다. 설문지는 총 400부를 배포하여 364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 및 누락된 설문 문항으로 인해 신

뢰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47부를 제외한 317부의 설문지를 실증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빈도분석을 사용하였고, 개별 변수들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주성분분석과 Cronbach's alpha값을 활용하였다. 연구과제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군집분석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 통계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설문응답자 317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특성	분류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53	48.3
	여성	164	51.7
연령	10대	18	5.7
	20대	19	6.0
	30대	58	18.3
	40대	89	28.1
	50대	97	30.6
	60대 이상	36	11.4
직업	학생	25	7.9
	사무행정직	51	16.1
	생산기술직	3	0.9
	환경관련전문직	4	1.3
	기타전문직	50	15.8
	자영업	31	9.8
	농림/수산업	6	1.9
	공무원	39	12.3
	주부	76	24.0
기타	32	10.1	
학력	중졸 이하	22	6.9
	고졸 이하	78	24.6
	대학교 재학	17	5.4
	대졸	171	53.9
	대학원 이상	20	6.3
수입	1,000만 원 미만	44	13.9
	1,000만 원~2,000만 원 미만	27	8.5
	2,000만 원~3,000만 원 미만	64	20.2
	3,000만 원~4,000만 원 미만	51	16.1
	4,000만 원~5,000만 원 미만	53	16.7
5,000만 원 이상	42	13.2	

보면 표 2와 같다. 우선 응답자의 성별 측면에서는 남성(48.3%)과 여성(51.7%)으로서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연령분포는 50대(30.6%)와 40대(28.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대가 5.7%로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60.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분포는 주부(24.0%)가 가장 많았고, 사무행정직과 기타전문직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수입의 경우 연소득을 나타내며 2,000만 원~3,000만 원 미만(20.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0만 원 미만~2,000만 원 미만이 8.5%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2) 트레킹 이용 특성

응답자들의 트레킹 이용에 관한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조사 대상지인 평화누리길 트레킹 김포2코스의 방문빈도, 다른 평화누리길 코스이용빈도, 이동수단, 이동시간, 동행자, 정보원천에 관한 결과를 분석하였다(표 3 참조). 응답자들의 평화누리길 트레킹 김포2코스 방문빈도를 살펴볼 때 처음 방문자가 대부분(81.4%)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수의 응답자들이 자가용(52.4%) 혹은 버스(28.7%)를 이용하여 평화누리길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서 평화누리길까지의 이동시간은 1~2시간 사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동행자는 친구/동료(35.6%)와 가족/친지(31.2%)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누리길에 관한 정보획득 경로는 주위사람(33.1%)이 가장 높았고, 공공기관 안내자료(20.2%)와 인터넷(16.7%)이 그 뒤를 이었다.

2. 측정변수들의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서 활용된 변수는 방문동기, 제약요인, 충성도이다. 방문동기와 제약요인의 경우는 주성분분석을 통하여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항목들 간의 구조를 분석하고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요인들은 이후 연구과제 분석을 위한 변수로서 이용하였다. 충성도를 구성하는 4개의 항목은 요인분석 결과, 단일요인으로 추출되어 각 항목들의 평균값을 합산하여 1개의 충성도 변수로서 이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1) 방문동기의 요인분석

방문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20개 항목에 대해 베리맥스 회전을 이용한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초기 분석결과, 2개 문항의 요인적재량이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거하였으며, 18개 문항으로 재분석한 결과, 총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KMO(Kaiser-Meyer-Olkin) 검정 결과에서도 .877의 값을 나타내어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의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각각의 요인에 개별 요인명은 요인별 구성항목의 대표적 특성을

표 3. 응답자의 평화누리길 트레킹 이용 특성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평화누리길 트레킹 김포2코스 방문빈도	처음	258	81.4
	1~2회	41	13.0
	3~4회	10	3.1
	5회 이상	3	0.9
다른 평화누리길 코스 이용빈도	김포1코스(대명항~문수산성 입구)	54	17.0
	김포3코스(애기봉~천류리 포구)	51	16.1
	고양1코스(행주산성~호수공원)	21	6.6
	파주4코스(화석정~황포돛배)	14	4.4
	파주2코스(통일동산~반구정)	11	3.5
	연천3코스(군남홍수조절지~신탄리역)	10	3.2
	파주1코스(출판도시~통일동산)	10	3.2
	고양2코스(호수공원~출판도시)	9	2.8
	연천1코스(장남교~송의전)	8	2.5
	파주3코스(반구정~화석정)	7	2.2
평화누리길까지 이동수단	연천2코스(송의전~군남홍수조절지)	6	1.9
	자가용	166	52.4
	버스	91	28.7
	걸어서	30	9.5
	기타	15	4.7
	자전거	8	2.5
평화누리길까지 이동시간	택시	2	0.6
	1시간~2시간 미만	126	39.7
	30분~1시간 미만	118	37.2
	2시간~3시간 미만	32	10.1
	30분 미만	21	6.6
평화누리길 동행자	3시간 이상	18	5.7
	친구/동료	113	35.6
	가족/친지	99	31.2
	동호회	46	14.5
	혼자	18	5.7
	기타	17	5.4
평화누리길 정보	연인	10	3.2
	주위사람	105	33.1
	공공기관 안내자료	64	20.2
	인터넷	53	16.7
	기타	32	10.1
	TV	16	5.0
	팝플렛/안내책자	14	4.4
	신문	12	3.8
평화누리길 정보	우연히	11	3.5
	잡지	1	0.3

반영하여 “생태체험 및 교육”, “일상탈출”, “사회적 교류 증진”, “가족/친지 유대감 강화”로 명명하였다(표 4 참조). 각 요인별 Cron-

표 4. 방문동기의 주성분 분석

영역	구분		공통성	요인적재값	평균 (표준편차)	고유값
	항목					
생태체험 및 교육 ($\alpha = .851$)	생태민감지역의 역사유적지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705	.795	3.71(.933)	3.70
	생태민감지역 주변에 대한 역사문화적 지식을 증진시키려고		.731	.783	3.50(.913)	
	생태민감지역을 방문하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679	.774	3.91(.889)	
	생태민감지역이라는 장소가 특별하기 때문에		.504	.671	3.72(.811)	
	자연에 대해 더 배우려고		.600	.573	3.57(.950)	
	생태적인 지역에서 트레킹을 하고 싶어서		.583	.569	3.79(.781)	
일상탈출 ($\alpha = .776$)	일상생활에서 벗어나려고		.693	.798	3.45(.979)	3.47
	여가를 즐기려고		.619	.694	3.66(.825)	
	친구와 함께 가려고		.497	.592	3.35(.937)	
	생활습관의 변화가 필요해서		.588	.578	3.40(.944)	
사회적 교류 증진 ($\alpha = .841$)	많은 사람들과 트레킹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785	.830	3.34(.945)	3.24
	비슷한 흥미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756	.809	3.30(.920)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려고		.650	.754	2.96(.918)	
	평소 트레킹을 좋아하기 때문에		.658	.620	3.38(.966)	
가족/친지 유대감 강화 ($\alpha = .800$)	가족간에 친화력을 높이기 위해		.774	.820	3.36(1.086)	3.06
	가족간 공통 취미를 갖기 위해서		.730	.809	3.10(1.090)	
	친구나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서		.499	.668	2.31(.966)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636	.639	3.53(1.086)	
총누적 설명력			89.9%			

bach's alpha 값은 모두 0.7 이상으로 항목간의 내적 일관성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Nunnally and Bernstein, 1994).

2) 제약요인에 관한 요인분석

총 1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제약요인 측정 문항들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베리맥스 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

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실시하였다(표 5 참조). 고유값(Eigen-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을 추출한 결과, 제약요인의 15개 문항 중 3개의 문항이 요인적재량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재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3개의 요인으로 묶였다. KMO(Kaiser-Meyer-Olkin) 검정 결과, .812의 값을 나타내어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의 적합

표 5. 제약요인의 주성분 분석

요인	구분		공통성	요인적재값	평균 (표준편차)	고유값
	항목					
시간부족 ($\alpha = .755$)	시간이 부족해서		.759	.859	3.07(.877)	3.03
	다른 활동으로 너무 바빠서		.747	.850	3.21(.927)	
	가족을 돌보기에 너무 바빠서		.609	.689	2.78(.941)	
접근성제한 ($\alpha = .698$)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780	.853	2.91(1.032)	2.79
	평화누리길이 너무 멀어서		.620	.717	2.59(.993)	
	평화누리길 트레킹 코스에 갈 방법이 없어서		.614	.716	2.91(1.031)	
심리적제약 ($\alpha = .774$)	평화누리길 부근에서 일어날 만일의 사고가 두려워서		.561	.730	2.35(.918)	2.39
	평화누리길이 너무 붐벼서		.538	.681	2.42(.878)	
	건강이 좋지 않아서		.482	.661	2.25(.931)	
	자연 또는 야외활동을 하고 싶지 않아서		.490	.631	2.28(.900)	
	평화누리길 보다 다른 지역의 트레킹 코스를 선호해서		.409	.629	2.74(.978)	
평화누리길이 너무 개발되어서		.481	.558	2.39(.911)		
총누적 설명력			81.8%			

성이 확인되었다.

개별 요인명은 각 요인들을 구성하는 주요 문항의 특성에 따라 “시간부족”, “접근성제한”, “심리적 제약”으로 명명하였다. 개별 요인들의 항목간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값이 사용되었고, 모든 요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인 0.6 이상으로 나타났다(Nunnally and Bernstein, 1994).

3. 방문동기 유형별 군집분석

트레일 이용객의 방문동기의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인값을 설명변수로 활용하여 변수들 간의 중복부분을 제거한 K-means 군집화방법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표본이 작은 경우(예를 들어 2~30개)에 이용되는 계층적 군집분석과는 달리 표본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예를 들어 100개 이상)에 사용되는 군집분석방법으로서 최종적인 군집의 수는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김준호, 1999). 본 연구에서는 군집의 적절한 수를 판단하기 위해 유사한 방문동기 항목들을 사용하여 군집을 분석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참조하고(Beh and Bruyere, 2007; 윤유식 등, 2011), 2그룹, 3그룹, 4그룹 군집을 비교 평가하였다. 이러한 비교과정을 토대로 기존 연구들에서 분류한 군집수와 동일하게 최종적으로 유효한 3개의 군집을 도출하였다. 각각의 군집은 ‘군집1(n=33)’, ‘군집2(n=140)’, ‘군집3(n=127)’로 구성되었다. 방문동기 유형에 대한 요인과 군집간의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사후검증(Scheffe multiple range test)을 통하여 평균의 차이에 따라 H(high)>M(middle)>L(low) 등으로 구별하여 표기하고, 각 군집을 구성하는 요인들의 특성에 따라 군집명을 부여하였다(표 6 참조). 군집 1의 경우 모든 동기요인들(생태체험 및 교육, 일상탈출, 사회적 교류 증진, 가족/친지 유대감 강화)이 다른 두 군집에 비해 낮은 것으로

표 6. 방문동기 유형별 군집간의 차이분석 및 사후검증

구분	군집1 (N=33)	군집2 (N=140)	군집3 (N=127)	F값
생태체험 및 교육	2.55 ^a (.775) ^b L ^c	3.59 (.415) M	4.11 (.382) H	161.570**
일상탈출	2.40 (.852) L	3.33 (.468) M	3.93 (.451) M	126.110**
사회적 교류 증진	1.98 (.655) L	3.09 (.546) M	3.73 (.537) M	139.640**
가족/친지 유대감 강화	2.18 (.852) L	2.75 (.670) M	3.60 (.583) M	87.848**

a: 평균, b: 표준편차, c: SMR(Scheffe multiple range-test: $p<.05$)에 근거하여 H(High)>M(Middle)>L(Low)로 구별하여 나타냄.

** : $p<.01$

로 나타났다. 즉, 이 집단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뚜렷한 방문동기 없이 우발적으로 방문한 측면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발적 방문객”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2의 경우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해 있는 집단으로서, 모든 방문동기요인에서 군집1보다는 높지만, 군집3과는 “생태체험 및 교육”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집2는 “활동적 방문객”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의 경우 트레일 이용에 있어 “생태체험 및 교육”에 해당하는 동기가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다른 동기요인들에 있어서는 군집1보다는 높지만, 군집2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태체험과 교육에 대한 욕구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방문객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기초로 해서 군집3은 “생태체험형 방문객”으로 명명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정리하면 군집1은 우발적 방문객 집단, 군집2는 활동적 방문객, 군집3은 생태체험 방문객이다.

4. 방문동기 군집유형에 따른 제약요인의 차이 검증

생태민감지역 내 트레일 이용객의 방문동기에 따른 군집유형별로 인식하고 있는 제약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표 7 참조). 분석결과, 군집유형별로 트레일 방문에 관해 인식하는 제약요인은 “심리적 제약” 요인을 제외하고는 다른 두 요인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태체험형 방문객 집단은 우발적 방문객 집단과 활동적 방문객 집단에 비해 심리적 제약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태체험형 방문객”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트레일이 지니고 있는 자연 생태적 특성과 문화적 자원의 이용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 집단은 트레일이 지니는 자원적 가치를 핵심적으로 소

표 7. 방문동기 군집유형별 제약요인의 차이

구분	우발적 방문객 (N=33)	활동적 방문객 (N=140)	생태체험형 방문객 (N=127)	F값
시간부족	2.32 ^a (.671) ^b — ^c	2.33 (.561) —	2.46 (.685) —	1.513
접근성제한	2.62 (1.049) —	2.81 (.723) —	2.84 (.829) —	.972**
심리적 제약	2.82 (.712) L	2.99 (.726) L	3.15 (.755) H	3.292*

^a: 평균, ^b: 표준편차, ^c: SMR(Scheffe multiple range-test: $p<.05$)에 근거하여 H(High)>M(Middle)>L(Low)로 구별하여 나타냄.

* : $p<.05$, ** : $p<.01$

표 8. 방문동기 군집유형별 충성도의 차이

구분	우발적 방문객 (N=33)	활동적 방문객 (N=140)	생태체험형 방문객 (N=127)	F값
충성도	3.00 ^a (.704) ^b L ^c	3.55 (.602) M	3.88 (.512) H	31.951**

^a: 평균, ^b: 표준편차, ^c: SMR(Scheffe multiple range-test: $p < .05$)에 근거하여 H(High)>M(Middle)>L(Low)로 구별하여 나타냄.

** : $p < .01$

비하는 방문객들이기 때문에 트레일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5. 방문동기 군집유형에 따른 충성도 차이 검증

응답자의 방문동기에 따른 군집유형별 평화누리길 트레일에 대한 충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표 8 참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발적 방문객, 활동적 방문객, 생태체험형 방문객은 평화누리길 트레일에 대한 충성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F=31.951, p < .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발적 방문객에 비해 활동적 방문객의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태체험형 방문객의 충성도는 활동적 방문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방문동기특성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발적 방문객은 모든 방문동기 요인들이 낮은 집단이기 때문에, 트레일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이해할 수 있고, 활동적 방문객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방문동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충성도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생태체험형 방문객은 트레일 자체의 자연과 문화자원의 소비에 관심이 많은 집단이기 때문에 충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고 이해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평화누리길 트레킹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방문동기에 따라 인식하는 제약요인과 트레일에 대한 충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실증적 검증을 위해 '2010 DMZ 접경 트레킹 대회'가 개최된 김포2코스(문수산성~애기봉입구)에서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회의 집결지인 김포조각공원과 점심식사를 하는 조강저수지에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고, 총 317개의 유효한 설문지가 회수되어 분석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2개의 연구 과제를 검증하기 위해 방문동기에 따른 군집분석이 이루어

졌고, 결과적으로 총3개의 유효한 군집이 확인되었다. 각 군집은 방문동기 특성에 따라 우발적 방문객, 활동적 방문객, 생태체험 방문객으로 구분되었다. 위의 세 군집별로 트레일 이용에 관해 인식하고 있는 제약요인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생태체험형 방문객들의 경우 다른 두 집단에 비해 트레일 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심리적 제약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생태체험형 방문객들이 더 많은 제약을 느낀다는 것이 아니라 트레일 이용에 대한 동기가 상대적으로 더 뚜렷하기 때문에, 트레일 이용에 대한 여러 위험요소와 제약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두 번째 연구문제의 결과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방문동기 유형별 트레일 이용에 대한 충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활동적 방문객은 우발적 방문객에 비해 더 높은 충성도를 보이고 있고, 생태체험형 방문객은 활동적 방문객에 비해 더 높은 충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이 결과는 트레일에 대한 여러 방문동기가 높을수록 트레일 자체에 대한 충성도도 높아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생태체험형 방문객은 트레일 자체의 속성과 관련한 제약요인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이고, 이러한 제약인식이 트레일 자체에 대한 낮은 충성도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충성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하였듯이 방문객들이 트레일 방문을 통한 생태체험 및 교육에 대한 욕구를 높게 인식할수록 트레일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또한 더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화트레킹 이용객들의 방문동기에 따른 제약요인과 충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몇몇 의미 있는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트레일 이용객들이 동일한 특성을 공유하는 단일 시장이 아니라 특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 세분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방문동기별 유형에 따른 방문객들의 제약요인 인식과 충성도의 차이가 보여주듯이, 동일한 여가활동대상인 평화누리길에 대한 심리적 태도는 동일하지 않다. 마케팅 활동과 이용목적에 따른 전략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생태민감지역의 생태적 가치의 우수성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트레일 계획이 꼽히고 있어 이에 따라 생태민감지역 내 조성된 평화누리길 트레킹 코스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평화누리길 트레킹 코스 일부 구간인 김포2코스의 이용객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 일반화시키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나 DMZ평화누리길 트레킹의 대표 코스로 다른 코스에 대한 이용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정량적 연구를 통해 다른 생태민감지역 내 트레일

조성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에 있어 이용객들이 주체가 되고 관리가 될 수 있을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인용문헌

- 강미희, 김남조, 최승담(2003) 대중관광객과의 비교를 통한 생태관광객의 차별적 특성규명: 여행동기 및 태도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17(2): 157-175.
- 김준호(1999) 사회조사전문가를 위한 SPSS사회조사분석(한국사회학회 편, "군집분석과 판별분석"). 서울: 고려정보산업.
- 김희성, 이재섭(2010) 트레킹(trekking)시장세분화를 통한 상품개발 방안: 여성 트레킹 참여자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2(1): 271-287.
- 박수완, 한승엽(1998) 관광동기와 관광지 매력속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7(2): 35-51.
- 오충현(2010) DMZ일원 트레일 조성 기본구상. DMZ 일원 산림의 보전과 활용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 윤유식, 전재균, 이상호(2011) 해양스포츠 참가동기에 따른 시장세분화. *관광연구* 26(2): 265-281.
- 이규철, 이우신, 임신재(2001)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시행체계에 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보고서*.
- 이시영(2004) 도시 근린공원의 방문계약 요인: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한국조경학회지* 32(1): 23-32.
- 이영주(2009) 강원도 산소길의 유형화 및 발전방안 연구. *강원발전연구원 보고서*.
- 이장로, 이춘수, 박지훈(2005) 해외다국적기업 제품에 대한 국가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가 브랜드 충성도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무역학회지* 30(6): 119-120.
- 최재용(2004) 자연경관보전관리를 위한 제도운영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보고서*.
- Aaker, D. A.(1991) *Managing Brand Equity*. 마케팅커뮤니케이션연구회(역), 브랜드자산의 전략적 관리. 서울: 나남, 1994.
- Ankomah, P. K., J. L. Crompton and D. Baker(1996) Influence of cognitive distance in vacation choic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3(1): 138-150.
- Assael, H.(1998) *Consumer Behavior and Marketing Action*(6th ed). Cincinnati, Oh: South-Western Pub.
- Beh, A. and B. Bruyere(2007) Segmentation by visitor motivation in three Kenyan national reserves. *Tourism Management* 28(6): 1464-1471.
- Buchanan, T. and L. Allen(1985) Barriers to recreation participation in later life cycle stages. *Therapeutic Recreation Journal* 19: 35-50.
- Chon, J. and C. S. Shafer(2009) Aesthetic responses to urban greenway trail environments. *Landscape Research* 34(1): 83-104.
- Crawford, D. W., E. L. Jackson and G. Godbey(1991) A hierarchical model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3: 309-320.
- Crompton, J. L.(1979) Motivation for pleasure voc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6(4): 408-424.
- Crowford, D. W. and G. Godbey (1987) Reconceptualization barriers to family leisure. *Leisure Sciences* 9: 119-127.
- David, S. and E. L. Jackson(1996) Factors that limit and strategies that might encourage people's use of public parks. *Park and Recreation Administration* 14(1): 1-17.
- Dick, A. S. and K. Basu(1994) Customer loyalty: toward an integrated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22(2): 99-133.
- Eagles, P. F. J.(1981)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 planning in Ontario, Canada.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47(3): 313-323.
- Eagles, P. F. J.(1992) The travel motivations of canadian ecotourists. *Journal of Travel Research* 31(2): 3-7.
- Ewert, A.(1985) Why people climb: He relationship of participant motives and experience level to mountaineering.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7(3): 241-250.
- Garrod, G. D. and K. G. Willis(1999) Methodological issues in valuing the benefits of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Journal of Rural Studies* 15(1): 111-117.
- Gerard, T. K. and J. M. Andrew(2003)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constraints, involvement, and commitment. *Proceedings of the 2003 Northeastern Recreation Research Symposium*.
- Holden, A. and J. Sparrowhawk(2002) Understanding the motivations of ecotourists: The case of trekkers in Annapurna, Nepal.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4(6): 435-446.
- Hubbard, J. and R. C. Mannell(2001) Testing competing models of the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process in a corporate employee recreation setting. *Leisure Sciences* 23(3): 145-163.
- Ian, H. and M. N. Sandra(1998) Evaluating the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The value of rural environments and policy relevance. *Journal of Rural Studies* 14(3): 357-367.
- Iso-Ahola, S.(1982) Towards a social psychology of tourism motivation: a rejoinder. *Annals of Tourism Research* 9:256-261.
- Jackson, E. L., D. W. Crawford, and G. Godbey(1993) Ne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5: 1-11.
- Jackson, E.(1991). Leisure constraints/constrained leisure: Special issues introdu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3: 279-285.
- Kim, H. G., M. Borges and J. Chon(2006) Impact of environmental values on tourism motivation: the case of FICA, Brazil. *Tourism Management* 27: 957-967.
- Land, C. T. and J. T. O'Leary(1997) Motivation, participation and preference: a multi-segmentation approach of the Australian nature travel market. *Journal of Travel and Tourism Marketing* 6(3/4): 357-369.
- McIntosh, R. W.(1977) *Tourism: Principles, Practices, Philosophies*. (2nd ed). Columbus, Ohio: Grid, Inc.
- Ndubisi, F., D. M. Terry and N. D. Ditto(1995)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A template for developing greenway corridor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33: 159-177.
- Nick, H. M. M. Douglas, E. W. Robert, B. Craig, S. S. Ian, P. S. Dave and C. T. Bob(1998) Contingent valuation versus choice experiments: Estimating the benefits of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in Scotland.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49(1): 1-15.
- Nunnally, J. and I. Bernstein(1994) *Psychometric Theory*(3rd ed). New York: McGraw-Hill.
- Oliver, R. L.(1999) Whence consumer loyalty?. *Journal of Marketing* 63(special Issue): 33-44.
- Pittman, H.(1980) A study of Wellington district Walkways. Prepared for the New Zealand Walk Commission, Wellington, New Zealand.
- Searle, M. S. and E. L. Jackson(1985) Recreation non participation and barriers to participation: Considerations for the management of recreation delivery systems. *Journal of Park and Recreation Administration* 3: 23-36.
- Thomas, G. Y., K. Neil, T. P. Johnson, A. K. Battaglia and R. J. Daniel (1995) Cultural landscapes and landscape ecology in contemporary greenway planning, design and management: A case study.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33: 295-316.
- Tian, S., J. L. Crompton and P. A. Witt(1996) Integrating constraints and benefits to identify responsive target markets for museum attraction. *Journal of Travel Research* 35(2): 34-45.
- Um, S. and J. L. Crompton(1992) The roles of perceived inhibitors and facilitators in pleasure travel destination decisions. *Journal of*

- Travel Research 30(3): 18-25.
46. Vallerand, R. J. and G. Losier(1999) An integrative analysis of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on sport.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1: 142-169.
47. Victoria, J. H.(1989)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18: 235-239.
48. Williams, P. and P. R. Fidgeon(2000). Addressing participation constraint: A case study of potential skiers. *Tourism Management* 21: 379-393.
49. Willis, K. G., G. D. Garrod and C. M. Saunder(1995) Benefits of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 policy in England: A contingent valuation assess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44: 105-125.
50. Yoon, Y. and M. Uysal(2005) An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motivation and satisfaction on destination loyalty: a structural model. *Tourism Management* 26: 45-56.
51. <http://cafe.daum.net/ggtrail>

원 고 접 수 일: 2011년 10월 4일
 심 사 일: 2011년 11월 16일(1차)
 2011년 12월 1일(2차)
 개 재 확 정 일: 2011년 12월 19일
 3 인 의 명 심 사 필